



## 기조강연



이종윤 목사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4지역이 언급되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이다. 이것을 NIV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세 지역으로 읽었다.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 사마리아 앞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이다.

사도행전 8-12장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한 말씀이다.

- 약력 : • 영국 성 앤드류스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대학교 수학  
• 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 실천운동 위원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사도행전 13-28장은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간 기록이다.

이 본문은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들 전도 계획을 선언하고 있다. 복음 전도의 대명령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요 17:18, 현대인의성경).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어 그 증거의 성격을 강조했다. 즉 예수가 전도자의 모델이 되신 것이다. 마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기초로 예수의 권세를 강조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들이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사도행전 1장 7-8절에 와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강조한 것을 발견한다.

첫째,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과업을 받았다는 것과 둘째, 그들은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즉 지리적 확장을 시키는 전도사가 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갈 것이라’ 하셨다. 그들의 증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갔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초대교회가 행한 전도사역을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잘 모르고 있다. 모든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의 복음 내용을 알고 있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그토록 급속히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었는지 역사가들도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다. 그것은 비공식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데 주

저할 필요가 없다고 19세기 독일 교회사가인 하르낙(Adolf Harnack)은 지적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비장의 무기였다.

## I. 깊은 오해

사도행전 1장 7-8절은 제자들에 의해 오해된 주님의 계책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에 영적인 것을 생각지 않았다. 사도행전 1장을 연구해 보면 이때에 제자들은 지상의 나라를 생각했다. 예수님은 자기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찾고 있는 나라는 무엇인가?

### 1. 그들은 정치적인 나라를 찾고 있다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나라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다. 아마도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다윗이 왕좌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 2. 그들은 민족적으로 제한된 나라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라고 주님께 물었다(6절). 그들은 이방나라엔 관심이 없었고 이방인을 무시했다. 물론 겉으로는 이방인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 3. 그들은 지리적으로 제한된 나라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이 나라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기를 원했다.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이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린 곳이고 메시아가 다스릴 곳이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세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

## II.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

### 1. 영적인 나라(A Spiritual Kingdom)

그 나라가 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했다.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영적인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는 이가 많지 않다. 주님이 영적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나 현대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

를 세운다면 누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아마도 그래서 예수는 영적인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나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제삼위이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다. 영적인 것은 만져지지 아니하고 구름 속에서 사는 이에게나 해당될 것이다. 영적이란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영생을 믿고 영생도 보이지 않는다. 구원, 중생, 칭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믿는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우리는 믿는다. 영적인 나라는 지나가 버릴 나라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국토와 국권은 회복했는지 모르나 영적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 영적인 나라의 회복을 도모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고 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가 영적인 나라다.

## 2. 능력있는 나라(A Powerful Kingdom)

8절에서 예수께서 사용한 ‘권능’(δυναμις)은 ‘Power’로 번역되었다. 7절의 ‘권한’은 ‘Authority’로 번역한다.

헬라어 ‘두나미스’는 스웨덴의 화학자요 엔지니어인 노벨

(Alfred Bernhard Nobel, 1833-96)이 그 당시 알려진 것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견함으로 영어 세계에 알려진 단어다. 폭발적인 힘을 가진 단어를 찾으려고 그의 친구이자 헬라어 학자에게 문의하자 그는 두나미스라고 대답했다. 노벨은 그 폭발적 힘을 다이내마이트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말씀한 권세나 힘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치적 권세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 권세는 제자들이 원한 바이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을 의미한다.

권력은 신비한 것 같다. 사람들은 한 번 권력을 쥐면 좀처럼 놓으려 하지 않는다.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무지한 자를 보호케 하시고 범법자를 벌하게 하시며 시민을 옹호케 하셨다. 그렇게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정치적 힘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여론엔 민감하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갖지 못했다. 정치적 환상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세상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그러나 아이디어만으로 세상이 참으로 바뀌지 않는다. 돈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법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다.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면 음주 운전자가 없어져야 하는데 날로 그 수가 증가된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성령이 타락한 인간을 거듭나게 하도록 복음을 사용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의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 큰 변화가 삶에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회개,

사회적으로는 개혁이, 정치적으로는 혁명이 일어난다.

### 3. 진리의 나라(A Kingdom of Truth)

빌라도 앞에 재판 받기 위해 서신 예수는 진리라는 말로 나라를 설명하셨다. 예수가 왕인지 묻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개역개정, 요 18:36)고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이 말씀의 뜻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의심없이 질문하는 어조로 “그러면 네가 왕이로다”라고 했다. 이때 예수는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대답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개역개정, 요 18:37).

물론 빌라도는 이 말을 이해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진리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것은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려고 말씀했다.

증인이란 영어로 witness 즉 to wit는 to know, 그리고 a wit는 알 만한 사람이다. 증인이란 어떤 것을 알 만한 사람이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해 증인이 되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도 우연이

아니고 진리의 증거로 말씀했다.

어떤 이는 돈을 모금하면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사는 데 편리하다. 어떤 이는 법으로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과정을 거쳐 복음에 유익한 법이 생기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마귀를 이기는 성도의 승리가 나온다. 그것은 어린양의 피와 증인들의 말씀으로 이기게 된다고 한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진리의 나라를 세울 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족한 것의 반대 개념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는 진리의 나라를 세우자.

### 4. 국제적인 나라(A Worldwide Kingdom)

사도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나라를 꿈꾸고 있다. 겉으로는 이방인을 말하지만 그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평을 넓혀 주시는 대답을 해주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기독교를 세계적 종교로 만든 말씀이다. 기독교는 좁은 국수주의가 아니다. 종족, 계급, 언어, 성의 차별을 넘어선 세계적 종교다.

## 5. 점진적 발전이 있는 나라(A Kingdom in its Gradual Extension)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와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기대를 가졌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눅 19:11).

예수가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은 실망했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뵈자 그 나라가 지금 회복될 것인가를 물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다.

### 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7절)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다. 역사의 순간, 발전의 신기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 사도들의 질문은 호기심에서 한 것이거나 또는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다. 때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다. 아들은 자기가 언제 돌아오게 될지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다(막 13:32). 그래서 예수는 그 때와 시기는 네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다.

### ② 때와 시기는 모를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8절).

그래서 예수 재림하시기 전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 강림사건과 재림사건 사이에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땅 끝까지(행 1:8)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마 28:20)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지상의 모든 곳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

지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처럼 국가의 비전과 과업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완성의 때와 시기는 모르나 계속 영적인 나라, 권능 있는 나라, 진리의 나라, 국제적인 나라로 발전하고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를 참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자.

## 결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네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인가 아니면 명령(네가 나의 증인이 되라)인가? 대답은 정확히 둘 다가 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므로 예언이다. 복음은 세상 모든 곳에 침투될 것이다. 동시에 이 말씀은 명령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을 모든 곳에 전해야 한다.

전도 명령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순종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해야 한다. 예수가 누구시며 그의 죽음과 구원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당신과 나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원고는 제3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2003년 5월 22일 - 장로회신학대학교)시 발표한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